Moody's, 우루과이 국가신용등급 Ba2로 하향 조정

(2002. 5. 6)

□ S&P에 이어 Moody's도 우루과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

- 5월 3일 Moody's社는 우루과이의 국가신용등급을 Baa3에서 Ba2로 2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, 등급 전망도 부정적(negative)으로 유지하여 향후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.

- Moody's社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유로, 재정적자 증가, 외채 증가, 국제금융시장 접근 제한, 수출 약세, 외화예금 유출 증가 등을 적시하고 있음.

- 특히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해진 상태이며, 대외 부채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 시행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.

- 한편, S&P社는 지난 2월 우루과이의 국가신용등급을 BBB-에서 BB+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.

□ 경기후퇴는 당분간 지속될 듯

- 경제소국이며, 인접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루과이는 브라질 헤알貨 위기가 발생한 1999년 이후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,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로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

- 경기후퇴와 환율인상으로 인해 2001년 말 현재 GDP대비 외채규모는 40%까지 증가하였고, 수출대비 외채원리금 상환 비율(DSR)도 25.4%로 증가함.

-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도 각각 GDP대비 3.5%와 4.0%에 이르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, 우루과이의 경기후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문의처 김영석 ☎ 3779-6653 claudio@koreaexim.go.kr
최성규 ☎ 3779-6665 ppio93@koreaexim.go.kr